신약성경 대부분이 불경을 모방하다

러시아의 언론인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예수는 13세 때 인도로 건너가 17년간 인도, 네팔, 티벳 등지에서 승려로서 생활하고 29세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수십 명의 탐험가들이 인도와 티베트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바 이를 종합하여 1984년 엘리자베스 C. 프로펫트가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을 발간하여 다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이후 국내외의 많은 학자와 저술가들이 예수의 인도에서의 승려생활과 더불어 불경과 신약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함께 밝히는 저술을 활발하게 발간하였다. 예수가 인도에서 배운 불교의 교리와 석가모니의 행적을 자신의 사상과 행적으로 꾸며서 설교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신약성경에 예수의 행적과 설교가 불경상의 석가모니의 행적·설법과 얼마나 흡사한지 예를 들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석가는 40일 단식 때 '마라'라는 악령의 시험을 받았다(불경 상응부경전) - 예수는 40일간 단식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성경 누가복음 4장1절)

♤ 석가는 12제자를 모든 계급의 사람에게 파견하였다(아함경) - 예수는 12제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파견하였다(마태복음 10장 1절)

♤ 석가의 열성적인 제자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던 중 석가의 확신을 받고 다시 끝까지 걸어갔다 (본생경 무쌍품) -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 물에 빠지는 것을 예수가 건져 주었다(마태복음 14장 25절)

♤ 석가는 발 위에 있는 한 개의 떡으로 5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버렸다(본생경 길상초품/바수나품) - 예수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버렸다(마태복음 14장 17절)

♤ 석가는 과부의 두냥 헌금이 정말 값지다고 했다(잡보장경) - 예수는 과부의 한 냥 헌금이 거룩하다고 하였다(누가복음 21장 1절)

♤ 사기꾼이 인도하면 개천에 빠진다(무문자설경) - 소경의 인도로 구덩이에 빠진다 (누가복음 6장 49절)

♤ 아시타가 천사들을 목격(본생경) - 목자들이 천사를 보다(누가복음 2장)

♤ 니르바나(열반)와 재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무문자설경) -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누가복음 16장 13절)

♤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타향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오히려 환대하며 돌보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장자궁자(법화경 신해품)와 신약성경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누가복음 15장 11절)는 똑같은 줄거리다.

♤ 예수의 산상수훈은 불교적 말씀들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법구경에서 석가모니가 설파한 사랑과 자비의 설법과 똑같다.

이뿐만 아니라 석가와 예수의 탄생설화, 아시타 선인과 동방박사, 책봉식과 세례식, 소년시절의 성인이 될 징조, 카이사파와 요한, 마아탕가와 사마리아여인, 신앙의 힘으로 잠재운 폭풍, 살인마와 길잃은 양, 경전비방과 성령모독, 신앙과 씨뿌림의 비유, 말법시대와 말세 등 신약성경상의 예수의 설교와 행적 대부분이 위와 같이 불경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참고문헌: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음양은 마귀의 속성인 사망의 법칙이다'

이 세상의 변화법칙(變化法則)과 하늘나라의 변화법칙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마귀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음과 양이 합치는 가운데서 만물의 변화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변화법칙은 일원체제(一元體制)가 되므로 영원무궁토록 변할 수 없는 영생체로 변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의 몸이 영이요 신인데, 신 자체가 영이다. 영이 마음이요. 마음이 피의 작용이므로 피라고 하는 것이 영이다. 그런데 피로써 사람의 몸이 되고 살이 되므로, 사람의 몸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 음과 양의 법칙 속에서 알 수 없도록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척추 스트레칭, 비틀어진 고관절 수정~

허리와 골반 근육을 강하게 하고 유연성을 높여 척추질환을 예방한다. 비틀어진 고관절, 툭 튀어나온 고관절을 교정하여 틀어진 몸매를 바로 잡아준다. 팔과 가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 효과도 낸다. 꾸준하게 수련하여 실천하는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

동작①: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올려 같은 쪽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당겨 올린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②: 한쪽 무릎을 가슴높이까지 올린 뒤 깍지 낀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당긴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③: 다리를 어깨너비 2배 넓게 확장하고 선다. 한쪽 다리는 앞쪽으로 뻗어서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뒤로 쭉 뻗는다. 이때 발바닥의 방향은 11자를 유지한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④: 한쪽 다리의 무릎을 대각선 모양으로 확장하고 한쪽 무릎을 구부려 준다. 1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point: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지 않는다. 구부린 무릎으로 체중을 이동시킬 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동작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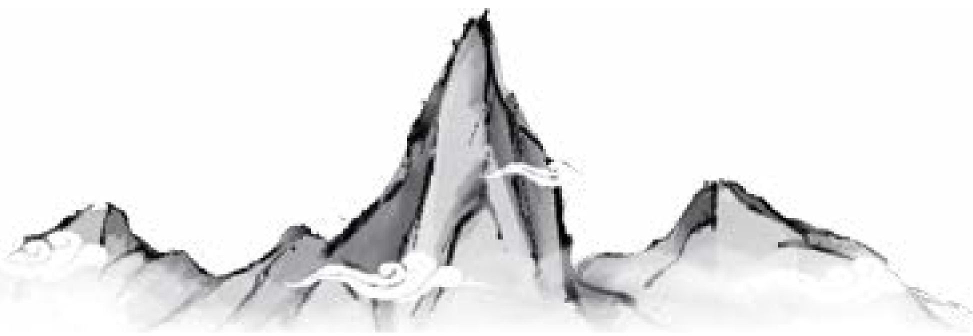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31회

갑진(甲辰) 을사(乙巳)에 길한 일이 많이 생기리라



生初之樂(五) 생초지락

堯舜以後孔孟書 요순이후공맹서
字字勸善蒼生活 자자권선창생활
傳來消息妄眞者 전래소식망진자
自作之孼誰誰家 자작지얼수수가
江山熱湯鬼不知 강산열탕귀부지
鷄山石白三山中 계산석백삼산중
靈兮神兮聖人出 령혜신혜성인출

요순 이후 공자 맹자의 사서삼경(또는 사서오경)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창생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참된 가르침을 망령되게 한 자는 스스로를 하늘의 의붓자식 요물로 만들었으니 그는 누구이며 어떤 집안인가? 진리를 망령되게 한 자 때문에 강산이 물 끓듯 하게 되리라. 계룡산에 도읍을 정한다는 정도령, 삼신산의 불로초를 가지고 온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신 성인 정도령이 소사에서 나오심을 귀신도 모르리라.

美哉山下大運回 미재산하대운회
長安大道正道令 장안대도정도령
土價如糞是何說 토가여분시하설
穀貴錢柰且何 곡귀전내차하
落盤四乳弓乙理 낙반사유궁을리
葉錢世界紙貨運 엽전세계지화운
小頭無足殺我理 소두무족살아리
弓弓矢口誰知守 궁궁시구수지수
世人自稱金錢云 세인자칭금전운

아름답도다. 천하대운이 한국에 돌아오니 장안 대도를 펼치는 정도령이 출현할 즈음 땅값이 똥값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늘 곡식이 너무 희귀하여 돈으로도 어찌 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인가? 낙반사유의 궁을의 이치를 알아야 하리라. 돈이 제일이며 모든 가치의 척도라는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이 되었는데 소두무족(小頭無足=火=마귀=뱀)이 나를 죽이나니 누가 궁을 십승을 알고 지켜나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칭 말하기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리라.

天下壯士未能覺 천하장사미능각
投鞭四海滅魔爭 투편사해멸마쟁
至氣順還萬事知 지기순환만사지
秋雨靑山六花飛 추우청산륙화비
春風好時陽照 춘풍호시양조
萬古風霜過去客 만고풍상과거객
天下萬事應和仙 천하만사응화선
春夏秋冬四時 춘하추동사시
松栢凌雪君子節 송백능설군자절
萬壑天峯弓弓士 만학천봉궁궁사
天地都來一掌中 천지도래일장중
四方賢士多歸處 사방현사다귀처
聖山聖地日月明 성산성지일월명
靈風潤化見天根 령풍윤화견천근
神心容忽看月窟 신심용홀간월굴
戊己分合一氣還 무기분합일기환
甲乙火龍多吉生 갑을화룡다길생
中靈十一揔靈臺 중령십일총령대
丙丁神鳥正大水土 병정신조정대수토
父母氣還定庚辛大號衆濟生
부모기환정경신대호중제생

천하에 뛰어난 선비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니 정도령은 채찍을 휘둘러 마귀를 멸하는 싸움을 하는데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돌면 만사(萬事)를 깨닫게 되니라. 가을비가 청산((靑山)을 적시고 흰 눈이 흩날리다가 어느덧 봄바람 부는 좋은 시절이 돌아오면 따뜻한 햇볕이 천하를 두루 비추게 되느니라. 정도령은 만고풍상을 다 겪고 지난 세월을 보냈으나 이젠 천하만사와 조화(調和)를 이룬 신선이 되셨음이라. 춘하추동 사시 늘 푸른 송백이 겨울눈을 능멸하듯 억천만 가지 고난을 다 이겨낸 군자의 절개를 지키며 만학천봉 위에 우뚝 솟은 것 같이 높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선비시라. 천지가 손바닥 안에 있으시니 온 사방에서 지혜로운 선비가 허다히 귀의하리라.

성산성지는 일월과 같이 밝고 밝으니 신령스런 봄바람으로 삭막한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윤택하게 변화시켜 밝은 해를 보는 듯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얼굴은 홀연히 밝은 달을 보는 듯하네. 무기(戊己)에 이르러 분산 분열 발달의 기운이 마무리 되고 수렴 취합의 기운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신이 기운을 타고 돌아오리라.

갑진(甲辰) 을사(乙巳)에 길한 일이 많이 생기리라. 중천운의 영부인(靈符印)을 가지고 오신 전(田)자 속의 주인공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이니라. 병신(丙申) 정유(丁酉)부터 정도령의 생명수가 대지(大地=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촉촉이 내리고 경자(庚子) 신축(辛丑)에 천지부모의 기운 즉 하나님의 기운이 돌아와 안정하시니 십승 진리를 크게 부르짖어 중생을 구제하리라.

天地大道氣還定 천지대도기환정
年年益壽江南仙 년년익수강남선
永寧通書玉甲記 영령통서옥갑기
天道大降一氣道 천도대강일기도
坊坊曲曲惟物處 방방곡곡유물처
世人不知天上仙 세인부지천상선
日月何山不照處 일월하산부조처
高出雲霄照最先明 고출운소조최선명

영원한 생명의 대도의 기운이 돌아와 안정하게 되고 해마다 수명을 더하니 남쪽 조선(한국)에 신선이 있음이라. 편안한 삶을 영원히 이루어 나갈 비밀을 기록한 서책인 옥갑기(玉甲記)에 씌어 있으니 이러하니라. 천도(영생의 대도)가 크게 내리니 유불선합일의 하나님의 무극대도로 중생들을 탈겁중생 하려하나 오직 물욕에 빠져 있는 방방곡곡의 세상 사람은 하늘의 신선이 내려오심을 알지 못하더라. 해와 달이 어느 산인들 밝게 비추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마는 하늘의 구름 위로 높이 솟은 봉우리가 가장 먼저 밝아지느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 010-3912-5953

참진리

감로이슬성신

전도 문답 [4]

질문: 감로를 내리는 주인공이 보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감로이슬이 내립니까?

답변: 동영상 예배 현장에서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면 감로이슬성신이 찍혀 나옵니다. 이 이슬성신이 바로 구세주의 분신입니다. 구세주의 분신이 이슬성신으로 내리는 데, 이 이슬성신이 사람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람 속에 있는 사자마귀를 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되면서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영생체로 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현재 이 순간에도 구세주의 분신이 되는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다면, 이슬성신을 내리는 본체가 되는 구세주께서 어딘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데...

답변: 구세주 이긴자의 실존체가 6천년 전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과 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셨는데, 아담 하나님이 선악과인 마귀 영에 속아서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마귀가 침투해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마귀 옥에 가두어 놓고 마귀가 주체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되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변한 다음 그 하나밖에 안 남은 하나님이 6천년간 계속 추적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안 남은 하나님은 그 추적을 피해 숨어지내면서도 인간구원의 무기(武器) 이슬성신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이 6천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6천년 만에 감로이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한국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은 상태에서 감로이슬성신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밀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 엄마 되신 주님에게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몸을 벗은 원래의 상태로 환원한 구세주 하나님께서 내리는 감로이슬성신은, 주님의 보광 이전에 의존하던 신앙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에게 임하는 강력한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질문: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답변: 하나님을 끌어당기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나의 몸과 마음과 그 생명 전체를 맡긴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맡긴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세주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매일 제단을 쌓으면 저절로 구세주가 내 소유가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2001. 8. 20). 이렇게 맡김의 원리는 구세주를 소유하는 방법이요 구세주가 내 것이 되니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010)2945-8254
横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